

제9회 어촌어항어장사진 공모전 시상식

홍선주씨 「멸치잡이」가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0월 18일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 사진은 입상자들과의 기념 촬영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9회 어촌어항어장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어촌 어항 어장의 활기찬 삶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가들의 작품 총 603점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홍선주씨의 「멸치잡이」가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정윤성씨의 「낙시대회」, 유일수씨의 「멸치작업」이 은상을, 동상에는 이원화씨의 「일출」이외 2점, 가작에 김태호씨의 「건조」이외 4점, 장려상에는 이한갑씨의 「김양식장」이외 4점이 입상했다. 입선에는 최철성

씨의 「천혜의 섬 무의도」의 59점이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모자들이 어촌과 어항과 어장에서 펼쳐지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의 단면을 포착해 담아낸 소중한 순간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소개됨으로써 응모자들의 작가정신을 더 높임과 동시에 어촌 어항 어장의 아름다운 풍광과 우리 수산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어촌 어항 어장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욕으로 작품 활동을 해줄 것”을 수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수산 문화 창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사진공모전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금상에 해양수산부 장관상패를 수여하고 상금도 2배로 증액하는 등 수산분야 최고 사진 공모전으로 권위를 더 높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 및 입선된 응모자에게는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가 금상에는 4점, 은상·동상·가작·장려상에는 3점, 입선에는 2점이 각각 주어진다.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공모전은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상: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2백만원
△은상(2점): 한국어항협회 회장상 및 상금 각 1백만원 △동상(3점): 한국어항협회 회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5점): 한국어항협회 회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상(5점): 한국어항협회 회장상 및 상금 각 10만원 △입선(60점): 한국어항협회 회장상.

공 지

제4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 ◆ 일시: 10월 29일 ~ 30일(1박2일)
- ◆ 장소: 인천 강화 일대 어촌 어항 어장
- ◆ 대상: 상록보육원생 60명
- ◆ 문의: (02)3673-2854
www.fipa.or.kr